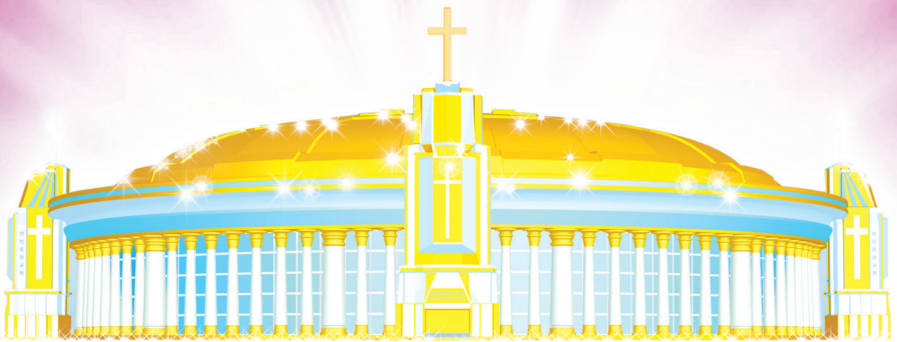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석(3)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황금란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협동 목사/ 문신현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김영석(3)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업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폴 무사피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태반 한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승, 마크 바질레프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저리 푸레브, 안흐바야라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이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지야
중 동: 보나 시두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소프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이성건 이동립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휴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희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택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의 정명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종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호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재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웅
나 사 랫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돌 성가대: 서승원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246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41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245장	다 같 이
기 도	최종태 장로
성경봉독 이사야 60:1~3	사 회 자
찬 양 놀라운 사랑/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사랑하시는 제단 - 하늘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61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 창립 40주년 기념예배 -

주일 오후 3시

사회/ 조희희 목사

대표기도	이미영 목사
성경봉독	이사야 60:1, 사무엘상 17:47/ 사회자
찬양	존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연합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김진희 권사
설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2부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 영상 상영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이석규 목사

대표기도	정규원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5:10/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은혜를 입은 사람/ 이미영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박형렬 목사

대표기도	조수열 목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16:15/ 사회자
찬양	샬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장정연 목사(콜롬비아·페루만민교회 담임)

※ 창립 40주년 특집 만민매거진 2편 상영

2-9회 7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10월 3일(월) ~ 10월 23일(주일)
주제/ 창립 40주년, 성전이전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이미경 목사	김진홍 장로
주일 저녁예배	임학영 목사	이복님 원장
수요 예배	문신현 목사	차난영 권사
금요 철야예배	문태규 목사	박광현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8)

본 문 : 롬 8:12~16

지난 시간에 이어 육신의 생각 둘째 단계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말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지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려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서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육신의 생각 둘째 단계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진리로 일군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요.

주님을 갓 영접한 믿음의 1단계에는 기억 장치에 비진리의 지식이 더 많습니다. 마음에 일군 진리의 분량도 적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세상에 있을 때처럼 구습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도 잘 행하지를 못하지요. 아직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의 2단계는 진리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진리가 많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도 많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막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믿음의 2단계 수준의 육신의 생각은 설교를 경청해서 듣다 보면 대부분 발견됩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더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지요.

같은 믿음의 2단계 안에서도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에 접어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판단, 정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또 판단,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에 놓이면 여전히 판단, 정죄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비진리에서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군수군하고 싶은 마음, 미움, 교만 등 버리지 못한 비진리가 발동하지요.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려고 해도 계속 떠오릅니다. 솟구쳐 오르는 거

센 물줄기를 억지로 막아도 물줄기가 여전히 솟아오르는 것처럼 마음의 비진리에서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나오지요.

2.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 보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모두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 근심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입을 까?’ 하고 육의 일들을 염려합니다. 또는 어떤 연단이 올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거나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더디면 낙심하지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 마음에서 기쁨을 몰아낸 것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 천국 소망,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있지요. 이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현실이 어떻든 간에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합니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를 믿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요. ‘내가 더 일해야 많이 벌 수 있고 이권 이렇게 해야 하고...’ 하면서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눈앞의 현실만 보게 되므로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서.’ 또는 ‘온종일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다.’ 또 ‘지금 시험 기간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끝나면 그때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다 육신의 생각이지요. 기도한다고 해도 중언부언하거나 졸면서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주관하실까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

어나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올려주십니다(눅 22: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시지요(벧 4:6).

또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습관을 좇아서 무릎을 꿇고 중심을 모아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맘 흘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더 경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듣지는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생각하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누구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놓이면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성도 중에는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갖가지 문제를 해결 받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차 문제를 해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나는 가난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가정이 화목하지도 않아서 감사가 당연히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임을 알아야 하고 그 생각 그대로 변함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지요. 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조건도 좋은 조건으로, 불통도 행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막 9:23).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현실을 바꿔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 받고 응답받는 것이 참으로 쉽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은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

다.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그러다 안 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뻐하지도, 기도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3.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쉬워져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채워진 비진리가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생각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갓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대부분 이 영적인 믿음의 크기가 겨우 구원 받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이 믿음을 자기 삶에 온전히 적용할 만큼 믿음이 큰 것은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만큼, 즉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내는 만큼 이 영적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의 힘'을 체험하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영적인 믿음이 자라지요.

감사하게도 이 제단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지요, 세상에 살면서 입력된 비진리의 지식이 깨어져서 신속하게 영적인 믿음이 자랍니다.

영적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설령 파도 같은 시련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현실은 현실일 뿐이다. 기도하면 아니 될 것도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붙여넣어 주시는 성령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 하셨습니다(마 11:30).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항상 평탄한 길을 걷게 되니 행복하지요. 그러므로 빨리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쉽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큰 문제 앞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아닌 영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26) - 환난은 죄에서 온다

본 문 : 욥기 11:12~20

오늘은 모든 환난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각이 없는 허망한 사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욥 11:12)
 지각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아서 깨닫는 능력” 혹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살아온 과정 속에서 쌓여진 지식으로 양식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이 바로 서 있으면 허망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낳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들나귀 새끼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묶어 놓지 않아서 제멋대로 뛰어다닙니다. 마음대로 다니다가 밧에 걸리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등 들나귀처럼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어둠의 일, 비진리를 행하지요. 그러다가 원수 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지각이 없는 들나귀처럼 행동하는 허망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 순종하며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2.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욥 11:13~14)

여기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복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찬송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가사처럼 ‘내가 옳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즉 그동안 빚나갔던 마음을 돌이켜 바로 정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죄악을 버리라 하지 않고 손의 죄악을 버리라고 한 것일까요? 구약 시대는 행위적인 구원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힘만으로 죄를 버릴 수 없으므로, 마음에는 죄가 있어도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았

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날 때 죄라 인정되지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손,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도적질을 하고,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사대질을 하지요,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소발이 욕에게 손의 죄악을 버리라고 한 것은, 결국 마음의 죄악을 돌이키라는 말이지요.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불의를 제하여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 가정, 일터, 사업터 등 모든 분야에서 죄악을 사라지게 하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악을 중심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설합니다. 그것이 참 회개라면 이제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험기내고 다투던 사람이 짜증을 버리고 다툼을 그쳐야 합니다. 불평하며 서운해하던 생각을 자신의 악이라 인정하고 이제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 고백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단지 회개한 상황만 모면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 모든 삶에서 그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 변화입니다.

3. 죄악을 버릴 때 임하는 축복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나…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욥 11:15~16)

‘흠 없는 얼굴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곤고하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지요. 또 진리를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단계가 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반대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시 66:18, 사 59:1~3).

그러나 욕의 경우는 큰 죄가 있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단을 통해 마음의 죄악을 깨달아 버리고 더욱 온전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에 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오해하고 있지요.

소발은 욕에게, “네가(환난을)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 했는데, 이는 죄에서 돌이키면 곧 환난을 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을 다시 움켜 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물이 계속하여 흘러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월의 흐름을 말하지요.

만일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가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세월이

흘러 그 환난이 지나가면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좋은 시간이 왔다면 오히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즐거워지며 감사의 마음이 들지요. 연단의 시간도 당시는 막막해 보여도 믿음으로 행군할 때 눈물이 기쁨으로, 한숨이 웃음소리로 바뀌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나…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침을 드리리라”(욘 11:17~19)

마음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들어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 마음의 죄악을 버릴 수 있고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도 불의를 몰아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세상과 짝해 살았던 어두운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는 진리와 짝하며 대낮과 같이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아직 시험 환난이 남아 있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곧 아침과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침이란 새로운 날, 새 소망,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시험 환난이 떠나니 새 힘을 받아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둠에서 나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납니다(고후 5:17). 원수 마귀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질병의 늪에서 건강한 삶으로 옮겨지고, 옹고집과 문제가 떠나니 참된 평안을 얻게 되지요.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새 아침을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하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새 날을 맞이하니 든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시험 환난 속에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새로워지니 소망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새 소망이 새겼으니 더욱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굳건히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에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루 살펴보며 안전히 쉬리니’ 했는데, 이 의미는 죄악을 버림으로 가정과 일터, 사업터에서 모든 불의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천군천사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기에 마음의 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결국 상대와 환경을 주관하던 어두움이 떠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시험 환난은 나와 상관이 없고 항상 평안하게 되지요.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면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없기에 두 발을 짚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시 48).

‘침’이란 문자적으로는 아침이라는 말과 같으며, 여기서는 “호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네게 침을 드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옴에게 호의를 베풀며 은혜를 구한다” 즉 존경과 사랑, 물질 등 많은 것들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죄에서 떠나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 악한 자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욥 11:20)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악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진리를 안다 하지만 지켜 행하지 않으니 여전히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지요. 그러니 이런 이들은 잘 보이지 않아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도망해야 합니다. 시험 환난이 아니라 빛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도망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인정하지 않고 환경 탓, 누구 탓하니 문제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해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자연히 영안이 어두워짐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도망할 길을 찾지 못하니 악한 자의 소망은 기운이 끊어지고 말지요. 악한 자는 악을 계속 쌓아가니 종국에는 더 나갈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며 기운이 끊어지므로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 사고와 질병, 재앙과 환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앞일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수시로 하며 보험과 투자 등으로 여러 대비책을 세우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완벽한 재앙 대비책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अन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한 대로, 모든 죄와 악을 벗어 버리고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환난이 떠나고, 두려움 없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과 달란트 비유

읽을 말씀 / 마태복음 25:14~30

외울 말씀 / 마태복음 25:21

참고 말씀 / 누가복음 4:6 ; 로마서 12:3

교육 내용 /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크든 작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소중히 감당하지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귀한 사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급까지 얻게 하시니 마음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1.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성도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자 종들을 불러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금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남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는커녕 땅에 묻어 두었지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칭찬합니다. 반면 한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타국’은 천국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또 ‘자기 소유’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천하 만물과 인생들을 말합니다(요 1:10 ; 히 1:2).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 만물과 인생들이 첫 사람 아담

의 불순종으로 인해 원수 마귀 사단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눅 4:6). 그런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쁨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아직 원수 마귀 사단의 소유로 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소유로 되찾는 것,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자기 소유를 맡기되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재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재능에는 육적인 재능과 영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찬양이나 무용 등 특별히 어떤 분야를 잘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 기술, 지혜, 학식 등이 육적인 재능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재능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재능은 영적인 재능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영혼 구원에 필요한 재능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각자 믿음의 분량(롬 12:3)에 따라 영혼 구원에 대해 그 뜨거움과 전도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할 수 있어 믿음대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되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은 담대히 전하지 못하니 그만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천국에 대한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큰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여 영혼 구원에 앞장서지만 그렇지 못 한 사람은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자 하지요.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구원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 봉사, 찬양 등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영혼 구원과 직결되므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영적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달란트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약간 적은 사람에게는 두 달

란트를, 아주 적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교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는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상이 주어지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하여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기의 재능 안에서 충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과 동등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4.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감추어 두었던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주님을 자기 생각에 맞춰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했지요.

또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좇아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땅속에 그대로 감춰 두었습니다. 곧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행치 않았으니 열매를 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변리도 취하지 못하게 했으니 그만큼 주인의 소유에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열 달란트 가진 자는 사명이 많아 벽찰 것 같지만 그만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기에 그 이상의 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마 25:30). 이는 자기 사명을 감당치 않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재능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어떤 사람은 ()를 의미하고, 타국은 ()을 뜻한다.
2. 주님께서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 (), ()이라는 영적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
3.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영혼 구원에 필요한 재능이 되는 것일까요?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달란트와 데나리온

무게와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달란트는 성경에서 재능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6천 일, 약 16년간 품삯에 해당한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로, 군인이나 품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헬라의 은화 1드라크마의 가치를 지녔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나의 삶 나의 신앙」이 핀란드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으로 만민뉴스 한글(978호) 신문을 발행하였고, 영어(728호), 중국어(602호), 스페인어(296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예배 및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10월 9일(주일), 10월 16일(주일) 2주간 진행됩니다.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항상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1)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2022 만민찬양제」가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GCN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마음에 진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기상 투표에 참가하시는 성도님들은 추천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창립기념예배가 저녁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로 있습니다. 2부에는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 영상이 상영됩니다.
 - 3) 10월 14일(금) 창립전야예배가 있으며 창립 40주년 특집 만민매거진 2편이 상영됩니다.
 - 4) 10월 16일(주일) 창립기념예배 및 축하 행사가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1부 예배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 2부 축하공연 (예능위원회 주관)
 - 3부 성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부스행사
- ※ 10월 16일(주일) 대예배는 오전 10시와 11시 30분에 있으며, 각 가정에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안내를 위해 모바일과 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 SNS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실내체육관 좌석 안내 및 주차, 오시는 길 등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4행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응모기간: 9월 26일(월) ~ 10월 9일(주일), 응모자격: 만민중앙교회 성도(지교회 포함)

※ 공모 제시어: 「당회장님」, 「만민교회」, 「창립축하」 중 택일하여 50자 이내로 작성

※ 응모방법: 모바일 및 교회 홈페이지 공모전 사이트에서 접수

※ 시상: 1, 2, 3등(시상금 수여), 입선작 모두에게 케익 쿠폰 증정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강민건 성도(1가나안) · 정성은 자매(3청년/ 8교구 정택수 장로 · 최성숙 전도사의 자녀)/
10월 15일(토) 오후 5시, 「웨스턴베니비스 영등포점 그랜드볼룸 2F」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임수진 집사 가족(중구 3교구)(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신학교 예배실	사택 예배실
10월 9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대대교구
10월 16일	대예배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저녁예배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창립예배	
10월 23일	대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대대교구	7~10 교구
10월 30일	대예배	1대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7~10 교구	중국대교구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10/9 일

- 00:00 - '일곱교회 21' 이재록 목사
- 05:00 - '욥기 강해 21' 이수진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73' 이재록 목사
- 18:30 - '그리스도의 향기' 이미경 목사

10/10 월

- 01:00 - '히라라 하였던가 구하여야 하리라 2'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74'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97' 이재록 목사
- 13:00 - '젓과 꿀이 흐르는 땅 11' 이수진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18'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57' 이재록 목사

10/11 화

- 01:00 - '감정을 제어하라 2' 이수진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98' 이재록 목사
- 10:20 - '성령의 9가지 열매 2' 이재록 목사
- 12:05 - '사랑장 7' 이재록 목사
- 13:00 - '젓과 꿀이 흐르는 땅 12' 이수진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19' 이재록 목사
- 18:00 - '욥기 강해 22'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15

10/12 수

- 00:00 - '일곱교회 24' 이재록 목사
- 01:00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8'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동하지 말라' 이수진 목사
- 12:05 - '사랑장 8' 이재록 목사
- 13:00 - '십계명 10'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20'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76'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59' 이재록 목사

10/13 목

- 01:00 - '욥기 강해 26'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77'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100' 이재록 목사
- 10:20 - '성령의 9가지 열매 4' 이재록 목사
- 12:05 - '사랑장 9' 이재록 목사
- 13:00 - '공간과 차원 1'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21' 이재록 목사
- 19:20 - '욥기 강해 11' 이수진 목사

10/14 금

- 08:00 - '창세기 강해 101' 이재록 목사
- 10:20 - '성령의 9가지 열매 5' 이재록 목사
- 14:00 - '일곱교회 25'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78'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1
- 20:40 - 뉴욕 연합대성회 3

10/15 토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79, 80' 이재록 목사
- 10:00 - '참된 가치' 이재록 목사
- 12:05 - '사랑장 11'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120'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824-7107, 1577-2073 / webmaster@gcntv.org

※ KT olleh tv 882번 및 유튜브 GCN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 41번(영어), 42번(불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일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Oct. 9(Sun.)

(Proverbs 8:17)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diligently seek me will find me.”

- Oct. 10(Mon.)

(Jeremiah 33:3)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

- Oct. 11(Tue.)

(Matthew 6:12)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 Oct. 12(Wed.)

(Matthew 6:21)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 Oct. 13(Thu.)

(Romans 10:13)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 Oct. 14(Fri.)

(Matthew 7:3)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that is in your brother’s eye, but do not notice the log that is in your own eye?”

- Oct. 15(Sat.)

(Matthew 7:7)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금주의 성경구절

10월 9일(주일)

(잠 8: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0월 10일(월)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10월 11일(화)

(마 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0월 12일(수)

(마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10월 13일(목)

(롬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월 14일(금)

(마 7: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10월 15일(토)

(마 7: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보람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니라/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람이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뉘게 보내라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이요/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명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다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간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10월 추천도서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 성경!

그 속에서 스펙타클하게 펼쳐지는
장대한 정복사!

속룩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민족...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바라다본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미세한 일들이
살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는지
마음 깊이 깨닫게 하는 감동의 메시지!

<기간>

2022년 10월 1일~10월 31일

URIM BOOKS

#홈페이지 : www.urimbooks.com

#페이스북 : facebook.com/urbooks17

#블로그 : blog.naver.com/ur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여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화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웅(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신서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상웅(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장!

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